

어느 '천출 글쟁이'의 마음 비우기

이효인 | 영화평론가

책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집에 가면, 나는 애써 그 집에 있는 서가를 외면한다. 큰 서가가 꽉 차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적 허영을 보는 것 같고, 정반대라면 그 사람의 정신적 빈곤을 확인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사실 장서 수와 그 사람의 정신 수위를 비교해 보는 행위를 그만 둔 지는 꽤 오래 됐다. 나부터 포함되는 말이지만, 실천과는 무관하고 심지어 이윤배반적인 지성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한 친구는 몇 년 전부터 슬금슬금 책을 갖다 버리더니 얼마 전에 가보니 그의 방은 십수권의 책만으로 단출해져 있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 역시 정기적으로 책을 묶어서 버린다. 누구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널리 읽히기 위한 것도 아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나의 행위에 비판적이다 못해 경멸의 수준에까지 다다를 것이다. 난들 왜 책 귀한 줄 모르겠는가. 어느 무책임한 신생 출판사에 묘한 인맥으로 엮여서 냈던 졸작이지만, 그것이 어느 서점 앞에 덩핑으로 나왔어 있는 것을 볼 때 느꼈던 비애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또 책을 묶었다. 언젠가는 이 책이 간절히 필요한 날이 올 것이고, 그 날 그 책은 퐁퐁 숨어서 나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묶었다. 집에 놀러온 한 후배는 제목들을 쓱 일별하더니 "형, 이거

버리지 말고 헌책방에 갖다 주시오"라는 말로 나의 행위를 따졌다. 그래, 욕먹어 싸다. 나 역시 나무를 아프게 잘라서 허명 세우는데 동참한 처지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는 책들에게 내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다.

또 아주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과 원고에 쫓겨서 관련 자료 읽기만으로도 혁혁대는 처지기도 하지만 결코 내가 닿을 수 없는 박식의 세계로 내쫓는 그 책들이 나는 싫다. 아직도 못다 읽은 책들만으로도 족하다. 나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반성이다. 하얀 손으로 그만큼 하얀 책갈피를 넘기며 사색에 잠겨도 화평하게 살 수 있는 복 받은 사람들과는 달리 채찍을 맞으며 책을 쓰는 주제에, 찢어 먹을 듯이 책과 비디오를 읽어야 하는 '천출 글쟁이' 주제에, 욕심내지 말자. 그래서 내 허영 때문에 가족들이 괴로워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뭐, 이만 것들이다.

물론 묶인 그 책들의 운명을 가여워 하며 도서관에도 물어봤고, 헌책방에도 가 봤다.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거나 시큰둥했다. 시대는 시대에 어울리는 행위만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나는 다만 그 책들이 이런저런 유통망을 통해 누군가에게 수익을 안겨줄지도 모른다고 애써 자위할 뿐이었다. 그런 외중에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왜 책 때문에 이토록 헤매는 걸까? 책 또한 쓰레기지가 않은가, 물질적 오염뿐만 아니라 정신적 오염까지 유발시키는 쓰레기, 내가 쓴 책들은 정말 독자들에게 가치 있거나 하다 못해 하루의 유익이나마 가져다줬을까? 또,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만 양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책이란 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또 다른 권력적 욕망의 찌꺼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 나는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답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책을 쓰는 행위와 책을 버리는 행위, 이 모든 행위들이 '시대'라는 이름으로 변명되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나무에게 죄스럽지 않은 책을 한번쯤은 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